■ 권중달교수의 역사칼럼〈6〉

천하석지(天下惜之)

천하 사람들이 애석하게 생각하겠지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살아있을 때에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죽은 다음에라도 두고두고 명성을 날릴 것인가는 아마 한 사람의 인생관과 관련 있는 것일 것이다. 일본에서도 그 이름을 기리는 젊은 사람이 있다. 그는 한국의 젊은이 이수현이다.

고려대학교 무역학과에 입학하였다가 휴학을 하고 일본의 아카모카이 일본어학교에 공부하러 갔다. 2001년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신오쿠보역에서 반대편 선로에서 추락한 취객을 구하려고 선로에 뛰어들었다가 취객을 구하지 못하고 그와 함께 목숨을 잃었다. 이때 그는 26세였다. 그 후 그의 의로움을 기리는 여러 행사가 있었고 그를 기리는 영화가 만들어 졌고, 그의 정신을 기리는 아시아장학회도 만들어졌다. 그는 죽은 후에도 의인(義人)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

그런 사람과 반대로 두고두고 간신(姦臣)이라는 달갑지 않은 평가를 받는 사람도 많다. 그 가운데 북송시절에 정위(丁謂, 966~1037)라는 사람이 있었다. 머리가 비상하게 좋았던 듯싶다. 말도 잘하고, 시(詩)도 잘 지었으며, 책을 읽거나 놀이를 하거나 음악을 하더라도 못하는 것이 없었다.

그 출세하는 것도 빨랐다. 기회를 잘 잡기도 하고 자기가 출세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면 제거하는데도 일가견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출세하는데도 체면을 가리지 않았다. 드디어 그가 참지정사라는 재상급 관직에 올라서 먼저 재상이 된 당시의 구준(寇準)과 식사를 하던 중에 구준의 수염에 음식이 묻자 이를 손수 닦아 주었다.

이때에 구준이 '참지정사나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수염에 붙은 음식찌꺼기를 닦다니!' 라고 핀잔을 주었다. 이 정도의 간단한 핀잔을 받고는 앙심을 품었다. 그리고 기회를 잡아서 선배이며 명재상인 구준을 쫓아내고 오래도록 재상의 자리에서 권력을 주물렀다. 그렇지만 후대의 사람들은 그를 북송시절의 간신으로 지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처럼 만고에 씻을 수 없는 오명(汚名)을 쓰고 있으니 그가 아무리 오랫동안 재상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영광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와 관계된 사람 가운데 이적(李迪, 971~1047)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적은 대신이 되어 정위와 같이 일을 하다가 정위가 부당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반대하다가 쫓겨나서 관직이 깎이어 먼 지역으로 보내졌다. 거의 귀양 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후에도 정위는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기회가 있으면 이적의 관직을 계속하여 깎아서 더 먼 지역으로 옮기었다.

한번은 정위가 이적의 관직을 더 깎아내려서 더 멀고 나쁜 형주(荊州)로 가게 하였다. 그는 이를 시행하는 칙서(勅書)를 중사(中使, 환관)에게 가지고 가게 하면서 정위는 그 환관에게 큰 선물을 주고 이적에게 칙서를 전달하게 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죽이라고 검(劍)을 싸가지고 가게 하였다. 정위의 부탁을 받은 중사는 칙서를 이적에게 전달하였지만 죽일 기회가 없었다.

어쨌든 칙서를 받은 이적은 형주로 떠나야 했다. 새로운 곳으로 떠나려면 준비도 해야 했지만 정위는 중사를 통하여 빨리 가라고 독촉을 심하게 하였다. 그만큼 고통을 주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적을 보내는 곳의 지방관들은 칙서를 거역할 수는 없었지만 덕스러운 이적을 이별하는 것이 아쉬워서 도조(道祖)를 지내 주었다. 도조란 길 떠나는 사람이 무사히 여정을 마치도록 비는 길 제사였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이적의 문인(門人)들은 가는 도중에 혹은 가서라도 정위에게 해를 입을 수 있을까 염려하여 좌우를 떠나지 않고 따라갔다. 때문에 정위가 보낸 중사는 이적을 죽일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다. 이적이 형주에 도착한 뒤에도 이적의 인간됨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하여 이적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칙서를 가지고 온 중사는 이적에게 가져다주는 음식을 중간에서 차단해 버렸다. 이적에게 먹이려한 음식은 썩어버렸다.

이를 보다 못한 이적의 문객(門客)인 등여(鄧餘)라는 사람이 화가 나서 정위에게 암시를 받고 온 중사에게 말하였다. "이 녀석아! 나의 이공(李公, 이적)을 죽여서 정위(丁謂)에게 아첨하려느냐? 나 등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네가 나의 이공을 죽게 한다면 나는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 " 이처럼 이적은 정위의 온갖 박해 속에서 살아가야 했고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

이 내용을 다 아는 어떤 사람이 정위에게 말하였다. "이적이 만약에 벼슬이 더 깎여서 죽는다면 선비들의 평론(評論)이 어떠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위가 이적을 미워하여 계속하여 좌천시키고 오지로 보내고 끝내 죽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적을 평가할 것인지를 물은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정위가 말하였다. "다른 시대에 말거리를 좋아하는 서생(書生)들이 이 일을 기록하고서 '천하 사람들이 이를 애석해 하였다.' 고 하는데 지나지 않을 뿐이겠지." 이적이 자기의 손아귀에서 죽게 된다면 그 사정을 아는 천하 사람들이 '이적이 애석하게 죽었다' 고 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 역사적 평가를 대수롭지 않게 그저 '억울하게 죽었군!' 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정적을 핍박하던 정위도 천년만년 권력을 잡고 있을 수는 없었다. 진종(眞宗)이 죽고 인종(仁宗)이 들어선 후에도 그는 제 세상으로 알고 진종의 능침공사 책임을 맡았다가 제멋대로 능침의 장소를 옮기려고 하였다. 이것이 들통이 나서 황실을 속인 죄에 걸려들었고 오히려 이적보다 더 멀고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해남도로 좌천되어 갔다.

지금이야 해남도가 남쪽 바다에 있는 좋은 섬이라고 알려 졌지만 북송시절에는 항상 덥고 습기가 차고 독충이 우글거리는 죽음의 땅이었다. 이적보다 더 나쁜 곳으로 간 것이다. 얼마를 지나서 마침 조정에서 교사(郊祀)라는 큰 제사를 지내고 관례에 따라서 사면령을 내리게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이 사면령을 이용하여 정위가 뭍으로 오게 될 것을 염려하여 여러 사람들이 반대의 상소문을 올렸다. '정위는 인연을 이용하여 아첨하면서 몰래 대신들에게 기대고 있는데, 이번 제사를 이용하여서는 반드시 몰래 높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보내어서 멀고 거친 곳에서 좋은 지역으로 옮기려고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황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정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다가 죽었다. 당시 재상인 왕증은 '그가 다시 채용되었다면 천하 사람들의 불행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가 다시 권력을 쥐는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것은 다행이라는 듯이다.

이적은 죽은 다음에 참 애석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고, 정위는 그렇게 죽었으니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평가하였다.

이런 것을 보고도 정위의 말대로 역사적 평가야 대수냐고 무시할 수 있을까? 권력을 쥐고 있는 분들이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사건들이다.

기해년 태사묘 춘향대제 봉행

초헌관 권영세 안동시장이 헌작하고 있다.

안동 태사묘관리위원회(위원장 張淑鎭)가 주관하는 기해년 태사묘(太師廟) 춘향대제(春享大祭)가 3월 21일(음력 2월 15일 中丁日) 오전 10시 안동시 태사묘길(북문동) 태사묘우(太師廟宇)에서 안동권씨, 안동김씨, 안동장씨 등 삼성(三姓)의 참제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이날 참제원 분정(分定)은 숭보당(崇報堂)에서 김시일(金時鎰)씨가 담당하여 헌관(獻官)과 제관(祭官), 참제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시간 30분에 걸쳐서 분정례(分定禮)를 마쳤다.

분정은 초헌관 안동시장 권영세(權寧世), 아헌관 장숙진(張淑鎭), 종헌관 김효진(金孝鎭), 집례 권용주(權容柱), 축(祝) 권영채(權寧采). 김교동(金教東). 장희진(張熙珍)씨가 각각 담당하여 2시간 30분에 걸쳐서 흐트러짐 없이 엄숙하게 춘향대제를 봉행하였다.

안동지방은 어제 저녁부터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춘분(春分)인 춘향일 새벽까지 비가 오락가락하였다. 주최 측은 춘향일 당일 비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다행히 비가 전연 오지 않아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기쁨이 배가되었다.

이날 헌관, 축관, 제례위원, 참제원 모두는 관복(冠服)과 도포(道袍)를 입고 향사(享祀)를 봉행하였으며 안동문화방송(MBC)은 특집프로에 사용하기 위해 태사묘 춘향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을 하기도 했다.

제례를 마친 헌관, 축관, 제례위원, 참제원들은 숭보당 앞 잔디밭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태사묘관리위원회 권영화(權寧華) 사무국장의 사회로 숭보당에서 <2109년도 태사묘대당회의(太師廟大堂會議)>을 개최하였다. 회의는 도유사(都有司) 인사, 위원장 인사, 경과보고, 2018년도 결산보고, 기타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초헌관을 맡았던 안동시장 권영세 도유사는 인사말을 통해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춘향제에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한 후 "앞으로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태사묘 주변을 말끔히 정비하고 아울러 소공원도 조성하는 등 정비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숙진 태사묘관리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태사묘 안에 있는 화장실이 낡고 비좁아 화장실을 수리하는 등 '행복안동' 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권영화 사무국장은 작년 12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개막식에 14명이 참석하는 등 작년 한해동안 일어난 각종 일 22건을 경과 보고했다. 이어 감사보고, 재산현황, 2018년도 결산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였다.

기타 토의에서 장숙진 위원장은 현재 태사묘의 회계연도는 '춘향일로부터 익년(翌年) 춘향일 전일까지로 정한다' 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로 개정하였다. 또 오는 5월 14일 오후 1시 한국국학진흥원 대강당에서 경북대 김명자 박사 등 대학교수 5명이 "안동의 삼태사와 지역사의 전개"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당회의가 끝나자 숭보당에서 음복례를 마친 참제원들은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로 나누어 비빔밥으로 점심을 먹으면서 환담을 나누다가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건〉

안동권씨 진천종친회 43차 정기총회

2019년 3월17일 오전 11시 안동권씨 진천군 종친회(회장 권오섭)는 진천읍내 한우프라자에서 진천군 종친회원 70여명이 모여 제 4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사무국장(권순성)의 사회로 시작하여 시조님 망배(望拜)와 전년도 결산보고. 금년도 사업계획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4월14일 전국 청장년 체육대회 참가를 위하여 회원 모두가 합심하여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권오섭 회장의 인사가 끝나자 기념촬영을 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날 충청북도 도총친회(회장 권태호) 사무처장(권혁만)이 참석하여 더욱 빛나는 자리가 되었다.

진천군 종친회는 1977년 창립되어 회원 150여명으로 4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모범 종친회이다.

사무국장 권순성

경주 운곡서원 봄 향례 안내

운곡서원 봄 향례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 일 시 : 2019년 4월 10일 오전 11시(음력 3월 6일, 수요일, 丁丑)

참제원은 당일 오전 9시까지 운곡서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 장 소 : 경주시 강동면 사라길 79-19

※ 연락처 : 안동권씨 경주회관 054-773-9290등

2019년 4월 1일

운곡서원 운영위원회